



## ◆ [Think Tank]

- (무역)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을 둘러싼 갈등 (WITA)
- (에너지) 탄소배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EPA에 대한 전문가 평가 (CSIS)
- (국제관계)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평가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Brookings)

## ◆ [의회동향]

- 전기자동차 OEM, 재생 연료 프로그램 참여 금지 법안(S.1741) 하원 발의(5.18)
-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립, 소형 모듈식 원자로 배치 가속화 및 러시아 핵물질 수입 금지 법안(H.R.3553) 하원 발의(5.18)

## ◆ [Top Headlines] 오늘의 헤드라인

- 미국, 미국 반도체기업 Micron에 대한 중국 조치에 우려 표명
- EU, 개인정보 관리 위반 혐의로 글로벌 테크기업 Meta에 13억 벌금 부과

## 싱크탱크

### [무역]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을 둘러싼 갈등 (WITA)

- 바이든 행정부, 세계 광물시장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에 대처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동맹국과 광물 협정을 통한 공급망 강화 도모
  - 중국은 주요 광산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광물 가공분야 60~100%, 배터리 구성 광물 생산/가공의 70~90%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
    - 미 지질조사 연구서(23.1)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제작에 사용되는 흑연과 망간 등을 포함한 15가지 중요 광물은 100% 수입에 의존
  - 더불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에

지급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 차량 인센티브(세액공제) 혜택을 미국의 동맹국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

- 미국 정부는 인센티브를 동맹국의 요청 및 협상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광물 관련 새로운 무역협정을 검토하고 있음
- 반면 공화당 및 환경 운동가, 동 전략이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광물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광물 협정 중단 촉구

#### □ 쏟아지는 미국 핵심광물 협정 러브콜과 갈등

##### ○ 광물 생산 촉진 및 세계적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정 체결 노력

- 일본, EU는 자국의 핵심광물을 IRA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키는 협정을 타결하거나 협상 진행 중이며,
-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필리핀 또한 유사한 협정 체결에 관심 표출

##### ○ 그러나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의회 배제문제, 외국기업의 세금혜택 확대, 협정의 불투명성 등 미국 상·하원 의원, 협회 등 내부 불만 고조

- 미국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 위원장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D-WV) 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한 불만 피력
- 미국 환경 및 노동 조직 블루그린얼라이언스, 미국 제조산업 보호 및 EV 생산 확대, 미국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하며 동맹국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

#### □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방안과 과제

##### ○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전략 수립 필요성 제기

- 美글로벌 에너지조정관 에이머스 호크스타인, 핵심광물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필요성 언급(워싱턴DC, 23.3월)
- 美에너지부 차관 데이비드 터크, 최근 E&E뉴스 인터뷰를 통해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에너지부와 국제개발금융공사(IFC), 국제개발국(USAID) 기관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통합전략' 수립 제안

- 미네소타, 애리조나, 알래스카주의 핵심 광물 비축지를 개발하여 미국 내 핵심광물 채굴 및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도 고려 필요
- 반면, 전기자동차 지지자들은 일련의 협정을 통해 친환경 차량 인센티브 혜택 대상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핵심광물 협정 관련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문현주 과장
- 발간기관 : WITA
- 발간일자 : 2023년 5월 9일
- 보고서명 : [Biden's Latest Climate Minefield: EV Mineral Deals](#)

## **[에너지] 탄소배출 권한을 강화하는 EPA에 대한 전문가 평가**

- 환경보호국(EPA),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기초한 화력 발전소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 제안(5.11)
  - 화석 발전소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함에 따라, 풍력, 태양광 및 청정에너지 발전으로 대전환이 필요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이 확대되고 있으나,
    - 2022년 웨스트 버지니아 대법원의 EPA 반대 판결로 엄격한 배출 및 오염 기준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전통에너지 옹호 卍간 대립 심화
- 美 CSIS, '에너지 보안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 전문가 의견 종합
  - 사이 맥기디(CSIS, 기후변화프로그램 연구원)
    - 현재 발표된 EPA 기준에는 2032년 화력 발전소 폐쇄 이후 요구되는 새로운 운영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 화석 발전 생산을 대체할 청정 에너지원 배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직 부족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송배전시설 구축 확대 입법 필요성 언급

- 존 라슨(연구기관 Rhodium Group, 발전 총괄 디렉터)
  -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의 인센티브 조항은 미국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32~42% 낮추고, 파리 협정 준수 노력을 통해 최대 50~52%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2030년 이후에는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등 기타 오염 물질을 단속하는 규정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청정에너지 표준 및 탄소 가격 책정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등 **EPA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정부 주도의 일관된 탄소정책과 지속적인 노력은 미국의 2030년 기후 목표와 현실 간 격차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화 달성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
- 카일 대니쉬(로펌 Van Ness Feldman, 파트너/조지워싱턴대 겸임 교수)
  - 웨스트버지니아 대법원이 '청정 전력 계획'(CPP)에서 제안한 저배출 또는 제로 배출 발전소 전환을 개별 발전소에서 구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한 사례를 들며 **법적 대립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
  - EPA는 **CCS\*1)와 수소 연료 발전을 '최고의 시스템'으로 언급하며** 2030~2040년까지 IRA 지원으로 비용 절감과 CO2 및 수소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 일각에서는 **CCS와 수소 연료 발전 방식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켜 범용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적절성 입증 방식에 의문을 제기

-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김용성 과장
- 발간기관 :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발간일자 : 2023년 5월 15일
- 보고서명 : [Experts React: EPA Greenhouse Gas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Fossil Fuel-Fired Power Plants](#)

1) CCS는 산업 공정에서 화석 연료 연소 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하여 생산된 곳에서 배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반되어 지질 구조 깊은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

## [국제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네시아, 호주의 평가

- 브루킹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의지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시각 분석
  -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인 협력의제를 모색하는 리더 역할을 자처했다고 평가
  - 하지만 아시아, 인도, 미국, 태평양 도서국, 유럽, 라틴아메리카까지 영향력 확대를 의도하였지만 아태국가의 입장 검토 미흡했음을 지적
    -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주도 인태전략 중점 협력국으로 한국을 평가
    - 미국의 중국 전략과 대비하여 한국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번영과 평화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식
    - 특히, 인도네시아 주도의 인태전략(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지지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 \* 한국, 한-아세안 연대 이니셔티브로 해양, 연결성,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이라는 AOIP 4대 과제를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
  - 인도네시아; 한국의 인태전략이 동남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를 '관전자'(Subset)로 취급할 가능성 우려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전략과 한국의 리더십 야망은 동남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를 인도-태평양의 일부 (Subset)로 취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 2021년 4월에 맺은 아세안 정상회의의 5개 항목 합의안 중 미얀마 군사정권 관련 합의안은 진전이 없었음을 지적
    - 한국에 강대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아세안 주도권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 강구 촉구

- 호주;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 상호 협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 대만의 안보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의 한-미동맹 강화는 호주의 인도-태평양 비전에 부합함으로 평가
  -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호주-미국-한국 협력강화는 상호 정책 운용성 강화 차원에서 호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평가
- 호주; 한국의 인태 비전이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
  - 한국의 인태지역 전략 비전이 미-중 전략적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냉소적 시각도 일부 있다고 언급
  - 한국의 인-태 비전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 지속적인 정책은 인도네시아 및 호주 같은 파트너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James Lee 자문관, 전태리 팀장
- 발간기관 : Brookings
- 발간일자 : 2023년 5월 12일
- 보고서명 : [How Indonesia and Australia view South Korea's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Indo-Pacific strateg](#)

## 의회동향

구분	분류	발의날짜	법안명	대표 발의자
에너지	하원	5.18 하원발의	<b>전기 자동차 OEM의 재생 연료 프로그램 참여 금지를 위해 청정 대기법 개정 법안 (S.1741)</b> A bill to amend the Clean Air Act to prohibit electric vehicl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from participating in the renewable fuel program, and for other purposes.	Grassley, Chuck [R-IA]
			<b>SMR 배치 가속화 및 러시아 핵 물질 수입 금지 법 (H.R.3553)</b> To establish the Office of Nuclear, Economic, Environmental,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ccelerate the deployment of small modular nuclear reactors, ban the import of Russian nuclear material, and for other purposes.	
에너지	하원	5.18 하원발의	<b>SMR 배치 가속화 및 러시아 핵 물질 수입 금지 법 (H.R.3553)</b> To establish the Office of Nuclear, Economic, Environmental,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ccelerate the deployment of small modular nuclear reactors, ban the import of Russian nuclear material, and for other purposes.	Wittman, Robert J. [R-VA-1]

##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p><a href="#">Meta Fined \$1.3 Billion Over Data Transfers to U.S.</a> (Meta, EU 개인정보 관리 위반으로 13억 달러 벌금)</p> <p>Meta는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전달한 혐의로 EU 규제기관으로 13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 받아... 테크기업의 EU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성 대두.</p>
The Washington Post	<p><a href="#">E.U. slaps Meta with record \$1.3 billion fine for data privacy violations</a> (EU, 글로벌 테크기업에 개인정보 위반 혐의로 13억 달러 벌금 부과)</p> <p>테크업계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로 글로벌 데이터 전송을 시행하는 많은 회사에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한다고 밝혀...</p>
New York Times	<p><a href="#">Debt Limit Negotiators Debate Spending Caps to Break Standoff</a> (부채 한도 협상가들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 노력 중)</p> <p>31조 4억 달러 규모 차입 상한 조정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첨예한 대립. 이번주도 수차례 회동을 통해 부채한도 협상 예정...</p>
Bloomberg	<p><a href="#">US Expresses 'Serious Concerns' About China Move Against Micron</a> (미국, 반도체기업 Micron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우려 표명)</p> <p>중국의 미국 반도체기업 Micron을 통한 반도체 구입 제한 지시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직접 중국과 협의하며 조율하고자 노력 중...</p>

\* 미국 동부시간 5월 22일 16시 기준

## Notice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14	<a href="#">미국 반도체 R&amp;D 지원 정책 방향</a>	2023.04월
US23-13	<a href="#">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a>	2023.04월
US23-12	<a href="#">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a>	2023.04월
US23-11	<a href="#">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a>	2023.03월
US23-10	<a href="#">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a>	2023.03월
US23-09	<a href="#">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a>	2023.03월
US23-08	<a href="#">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a>	2023.03월
US23-07	<a href="#">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a>	2023.03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획7	<a href="#">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a>	2023.01월
US22-기획6	<a href="#">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a>	2022.12월
US22-기획5	<a href="#">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a>	2022.12월
US22-기획4	<a href="#">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a>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2 (2023.5.31)		차주 공개
코인시-11 (2023.5.8)		